

KBI하남 고정주 회장, 지스트 발전기금 10억 원 기부

- 28일 기부 협약식 개최..."(가칭) 지스트 복지클럽 건립에 사용해 달라"



▲ 28일(수) 오후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KBI하남 고정주 회장이 지스트에 발전기금 기탁 및 기부협약을 맺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스트 전창덕 연구원장, 김기선 총장, KBI하남 고정주 회장 부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발전재단 이사장이자 광주광역시 최초로 국비와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건립한 지식산업센터 'KBI하남'의 고정주 회장이 지스트에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했다.

1993년 지스트가 설립된 이래 기업을 제외하고 개인이 10억 원대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은 처음이다.

고정주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했다"며 "지스트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위한 (가칭)'지스트 복지클럽' 건립을 위해 써 달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1982년 주식회사 아성법인을 설립 후, 삼성 협력업체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백색가전제품 금속가공 업체로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제1호 지식산업센터인 'KBI하남'을 건설하고, 동종산업의 집적화, 서로 다른 업종 간 협력사업 등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를 **전국적인 스타트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를 위한 고정주 회장님의 마음을 모든 구성원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지스트 구성원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스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창덕 지스트 연구원장 겸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발전기금 기부 협약식을 시작으로 지스트가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주 회장의 발전기금 기부 협약식은 9월 28일(수) 오후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김기선 총장, 전창덕 연구원장 등 지스트 보직자들과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진, 고정주 회장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